

朝鮮王朝後期 활옷의 研究

— 福溫公主의 활옷을 中心으로 —

李 相 恩

<目 次>	
一. 序 論	七. 福溫公主 활옷의 諸般特徵
二. 활옷에 대한 用語表現의 再檢討	1. 施繡된 紋樣種類의 單純化
三. 純祖의 第二女 福溫公主	2. 활옷緞布의 染色美
四. 年代가 明確한 公主의 활옷	3. 섬세하고 端正한 동정
五. 福溫公主 활옷의 實測	4. 刺繡의 造形美와 針繕美
六. 福溫公主 활옷의 細部各論	5. 公主활옷에 보인 앞길이의 異色の構成
1. 色彩의 淡純美	6. 金糸線에 의한 空間的 造形美
2. 構成의 均衡美와 形態美	八. 結 論
3. 繡飾美의 極致	

一. 序 論

우리나라의 古服飾을 專門적으로 研究하는 경우에 부딪히는 難關이 많으나 그중에서도 두가지 基本的인 制約이 있다. 즉 文獻中心으로만 研究를 이끌고 나가게 되면 古服飾의 本來形態를 實感있게 把握할 수 없고, 反面 極히 그 數가 制限된 傳存遺物에 立脚하여 考證하는 것만으로는 古服飾의 變遷過程을 體系化할 수 없는 限界에 直面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古服飾을 研究하여 體系化하는 가장 理想的方法이란 결국 文獻的 研究와 철저한 遺物考證의 併行이 要請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은 전혀 그와는 相反되는 狀況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筆者는 研究方法論에 있어 그동안 文獻的 研究를 基本方法으로 하여 出發하는 한편 古服飾의 새로운 遺物을 찾아내려고 努力해왔다. 그러던중 多幸히 1982年 春雪이 北嶽에 훗날리던 초봄에 드디어 貴重한 古服飾 數點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筆者가 우리나라 古服飾研究에 着手한 後 처음 遺物을 發見한 터인데다가, 그 遺物이 一般平民의 것이거나 官員의 章服도 아닌 宮中의 公主가 입었던 婚禮服이었다는데서 그 發見에 따른 感激이 無量하였다. 즉 朝鮮王朝 第23代 純祖(1790~1834)의 第2女 福溫公主가 입고 婚禮를 치른 활옷(豁衣)이었다. 그밖에 數點의 重要한 遺物도 동시에 찾아내게 되었다.

이 福溫公主의 활옷과 그밖의 遺品을 保管하여온 所藏者는 서울昌文女子中學校의 金貴年校長님으로 이 분은 世人이 흔히 하는대로 이 遺品의 一般公開를 굳이 反對하시고 默默地 先代의 貴重한 遺品을 秋毫의 毀損없이 所重히 保存간직하여 오는데에만 힘쓰셨다. 이번에 筆者의 屢次 간곡한 所請에 의하여 오직 學問上 研究目的에 限하여 研究의 資料로서 研究期間中 直接 實測하고 諸般研究檢討의 便宜를 提供받았다. 그동안 빈번히 所藏處(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에 出入하여 考證을 進行하였다.

本拙稿는 福溫公主의 宮中활옷을 發見함을 契機로 우선 그동안 多少 論議되다가 浮沈해버린

『華衣』에 관한 用語問題를 간단히 再檢討하여 筆者의 所信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始作하여 遺品の 主人公인 福溫公主에 대하여 紹介하고 本論으로 公主 활옷의 細部各論을 展開하고자 한다.

二. 활옷에 대한 用語表現의 再檢討

現在 흔히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활옷』으로 되어 있으나, 막상 漢字로 表記할 경우에는 混亂해지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 即 宮中の 婚禮服으로서의 『활옷』이란 純粹한 우리 語源에서 온 것이 아니다.

『豁衣』¹⁾의 文獻的 出典은 『尙方定例』이다. 即 尙方定例 卷十五에 『袂豁衣』가 나온다. 이 固有한 婚禮服章名을 떠나서 단순히 漢字의 뜻만을 풀이한다면 『소매가 넓은 옷』이라고 하겠다.²⁾

現在 즐겨쓰고 있는 『활옷』이란 表現은 『袂豁衣』三字中 첫字인 『袂』를 빼어버리고 둘째字인 『豁』의 音을 따고, 셋째字인 『衣』의 意를 우리 말로 바꾸어 『옷』이라고 하여 『활옷』으로 불러 온 것이다.

그러나 이 袂豁衣는 中國服制를 模倣한 것으로서 『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婚禮新婦가 입는 濶袖衣는 『華制』라고 하였다.³⁾ 그리하여 이 宮中婚禮正裝의 名稱은 그 由來에 따라서 『華衣』라고 하였으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以後 悠久한 歲月이 흐르면서 우리말 名稱을 부여하게 되었다. 먼저 構成上의 特徵에 의하여 『豁衣』 또는 『濶衣』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婚禮服에 施繡한 紋樣數에 의하여 『百花衣』 『花衣』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近者에 이르러 이 用語問題에 若干의 論議가 제기되어⁴⁾, 筆者 역시 그 點에 깊이 留意한 바 있었다.

本來 中國에서 온 服制이기 때문에 華制라고 하여도 無妨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以後 우

리말 表記인 『豁衣』라는 用語가 固定化되어 漢字로 表記할 경우에는 『花衣』나 『濶衣』의 경우 보다는 各種文獻에 보이는 用例頻度가 많은 『豁衣』가 適當하다고 筆者는 主張한다.

最近 用語名稱表記의 事例

執筆·刊年	著書名	著·筆者	名稱
1964	韓國服飾史研究	金東旭	『...斷定을 못하겠다』
1968	우리나라 婚禮服에 關한 研究	朴京子	활 옷
1971	韓國服飾史	石宙善	"
1972	李朝禮服에 關한 考察	李順洪	華衣
1975	한국복식사연구	柳喜卿	활옷(華衣)
1977	활옷의 形態와 紋樣에 關한 研究	孫敬子	활 옷
1978	韓國의 刺繡	許東華	"
1981.5	朝鮮時代宮中服飾	文化財 管理局	활옷(華衣)
1983.3	韓國服飾史論	李京子	활 옷
1983.6	한국복식사자료선집	孫敬子 金英淑	"
1983.6.23	東亞日報		"

(備考: 1983.6.23日 東亞日報 11面에 報道된 記事 『公主 활옷 처음 공개』는 筆者가 本稿를 執筆하던 도중에 學術的 次元을 떠나 一般을 위하여 取材한 것이다.)

三. 純祖의 第二女 福溫公主

朝鮮王朝 第23代 純祖는 正祖의 아들로 正祖 14年(1790) 6月18日에 誕降하여 同王 24年(1800) 7月4日에 寶令十一歲에 即位하여 在位 34年(1834) 11月13日에 四十四歲를 一期로 昇遐하였다.⁵⁾ 純祖는 二年(1802) 10月16日에 安東金門 祖淳의 딸을 王妃(純元后)로 맞이하여 二王子 四公主를 낳았다.

安東金氏門中에서는 이 純祖王后에 이어 憲宗妃인 孝顯后와 哲宗妃인 哲仁后까지 세분의 王妃를 輩出하였다.⁶⁾

그런데 純祖의 第二女 福溫公主는 세분 王妃

1) 尙方定例三.

高麗史志 卷二十六.

2) 同上, 『袂豁衣』 『濶袖衣』.

高麗圖經卷二十, 『...王妃夫人以紅爲尙益加繪繡』의 記錄을 넓은 소매의 옷이라고 쓴 글이 있는 바, 그것은 잘못이다.

金東旭 『高麗圖經에 나타난 服飾』(『韓國의 服飾』 105~116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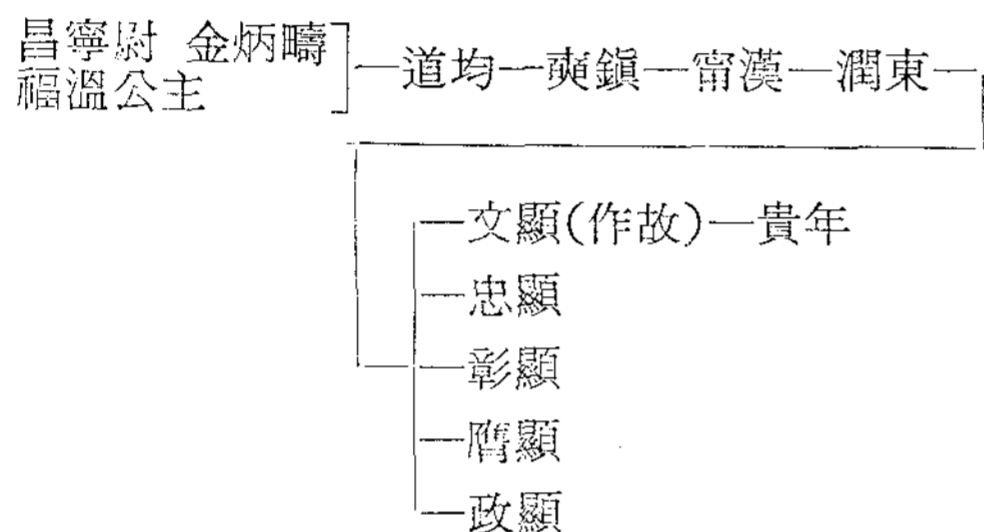
3)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十五.

4) 金東旭著 『韓國服飾史研究』 335面.

5)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元年條, 純祖實錄即位年條.

를 輩出한 그 安東金門의 工曹參判 金淵根의 외 아들 炳疇(1819~1853) 그분에게 出嫁하였다. 卽 福溫公主는 戊寅生이므로 純祖 18年(1818)에 태어나 不過 13歲의 어린 나이에 同王 30年(1830) 10月16日 大婚禮成한 것은 지금부터 153年前의 일이다.

그러나 婚後 不過二年인 純祖 32年(1832) 5月 12日에 公主는 꽃다운 15歲에 不幸하게도 世上을 떠났다(葬地 서울특별시 도봉구 번동93). 이 哀切悲運에 간 福溫公主의 활옷등 遺品을 보관하고 있는 金貴年校長님은 바로 이 福溫公主의 六代孫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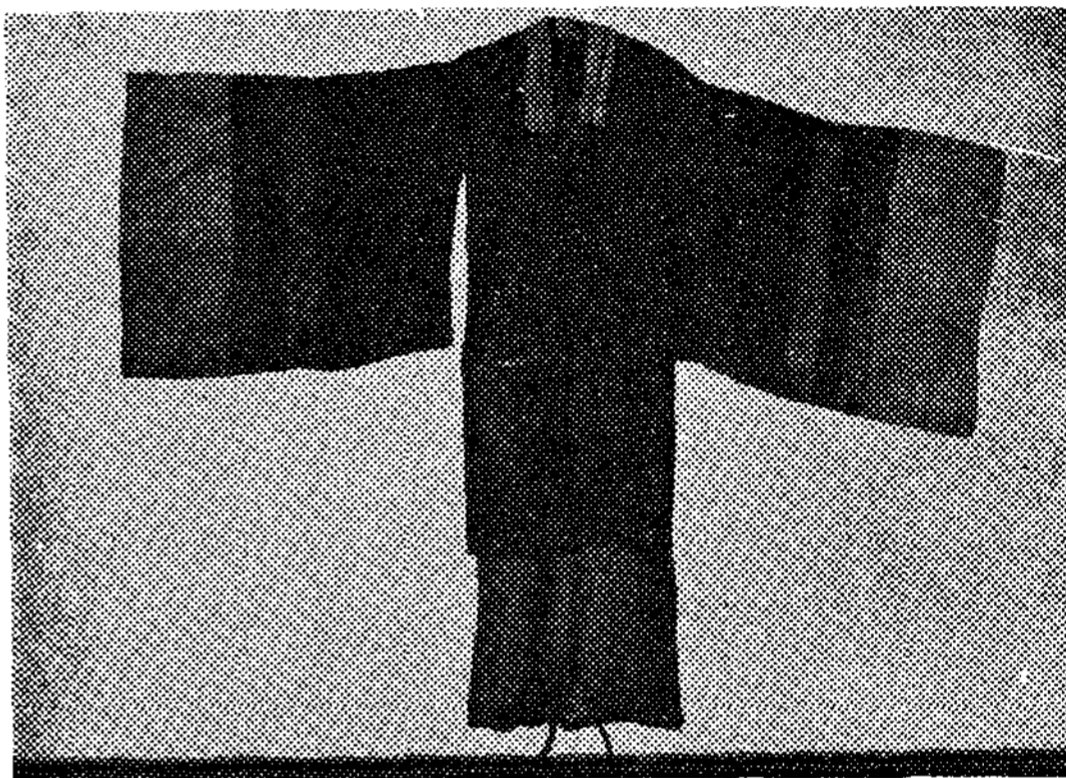
四. 年代가 明確한 公主의 활옷

지금까지 활옷이 發見된 것은 모두 그 上限年代가 百年을 넘지 못한 遺物들이었다. 그리고 發見된 遺物中 公主활옷은 한벌도 없었거니와 昌德宮遺物中에 包含된 활옷도 상당한 水準의 것으로는 보이나 年代가 分明치 아니하다.⁸⁾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활옷은 遺物이 아니고 바로 이 昌德宮遺物中의 활옷을 同一한 寸수로 1973년도에 만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高麗大學校 博物館에 所藏된 활옷이 세벌 있는데 그것 역시 年代가 不明한 것으로 一般世間에 傳하여지기로는 百年前의 것으로 推定하고 있으나, 筆者의 眼目으로 判斷하기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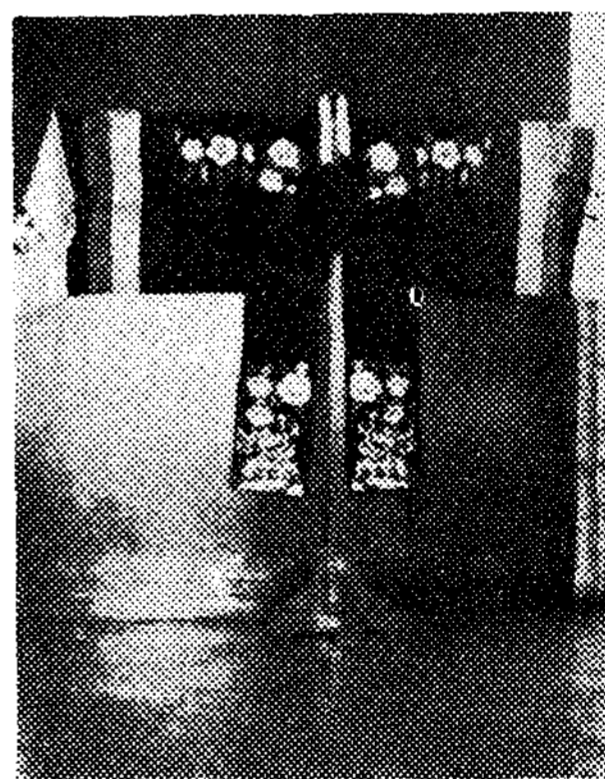
모두 百年이 못되는 遺物로 생각된다.

그밖의 個人所藏으로는 百年前의 것인 한벌과 近來의 것인 두벌이 있다고 한다.⁹⁾ 이외에 비교적 近來의 遺物로 찾아진 활옷이 多少 있으나 모두가 民間에서 共同婚禮服으로 쓰여지던 것이다.

이번 筆者가 처음 찾아낸 활옷은 활옷의 主人과 그 年代가 明確한 첫 케이스이며 더구나 公主의 활옷으로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따라서 활옷研究에 있어서 決定的인 遺品인 것이다. 正確히 153年前 純祖 30年(1830) 10월에 입



〈昌德宮遺物 활옷(年代未詳)〉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所藏 활옷〉
(昌德宮遺物을 본떠서 만든 것)

6) 李丙燾著『韓國史大觀』415~417面.

田保橋潔『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卷.

震檀學會『韓國史 最近世篇』.

7) 安東金氏世譜 卷五(判官公派——文正公尙憲派) 福溫公主에 관한 내용을 보면 『尙福溫公主戊寅生壬辰五月十二日卒墓梧峴先塋西坐合窆判書申錫愚撰判書李興敏追記議政李根命述并書公主誌判書朴周壽奉教撰表華棲府君撰李興敏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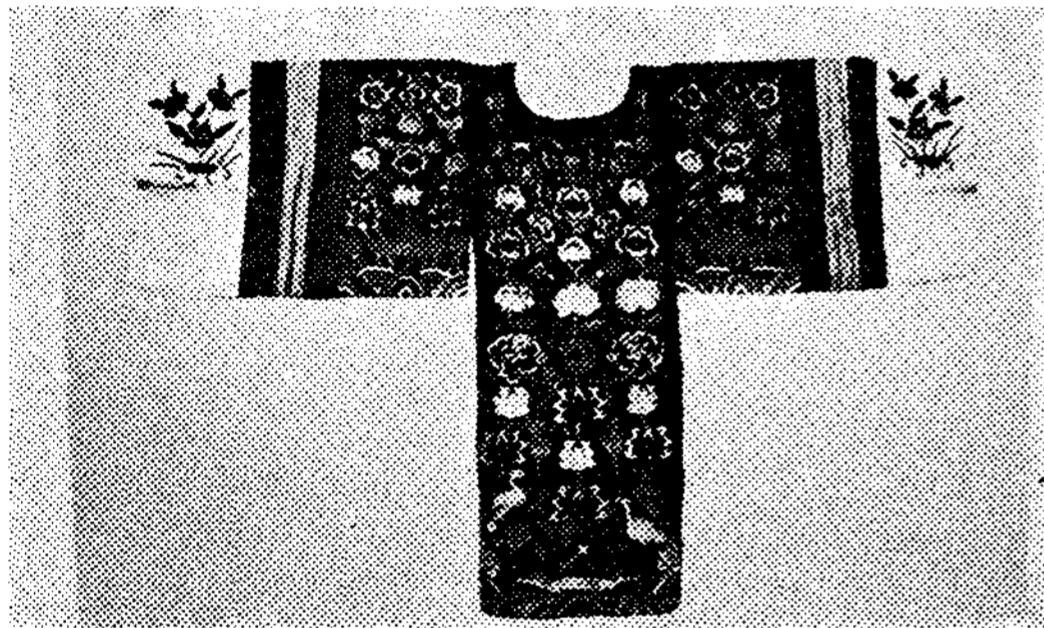
金彰顯著『尙白山房詩文存』卷之七.

8) 昌德宮所藏의 諸般遺物이 整理되고 本格的인 研究가 着手되게되면 그곳 所藏의 활옷도 考證이 加하여져야 할 것이다.

9) 손경자『활옷의 形態와 紋樣에 관한 研究』(『服飾』誌 創刊號 1977, 54面).



〈高麗大學校博物館所藏 활옷(年代・主人未詳)〉



〈民間用 활옷(年代未詳), 許東華著『韓國의 刺繡』 165面에서 引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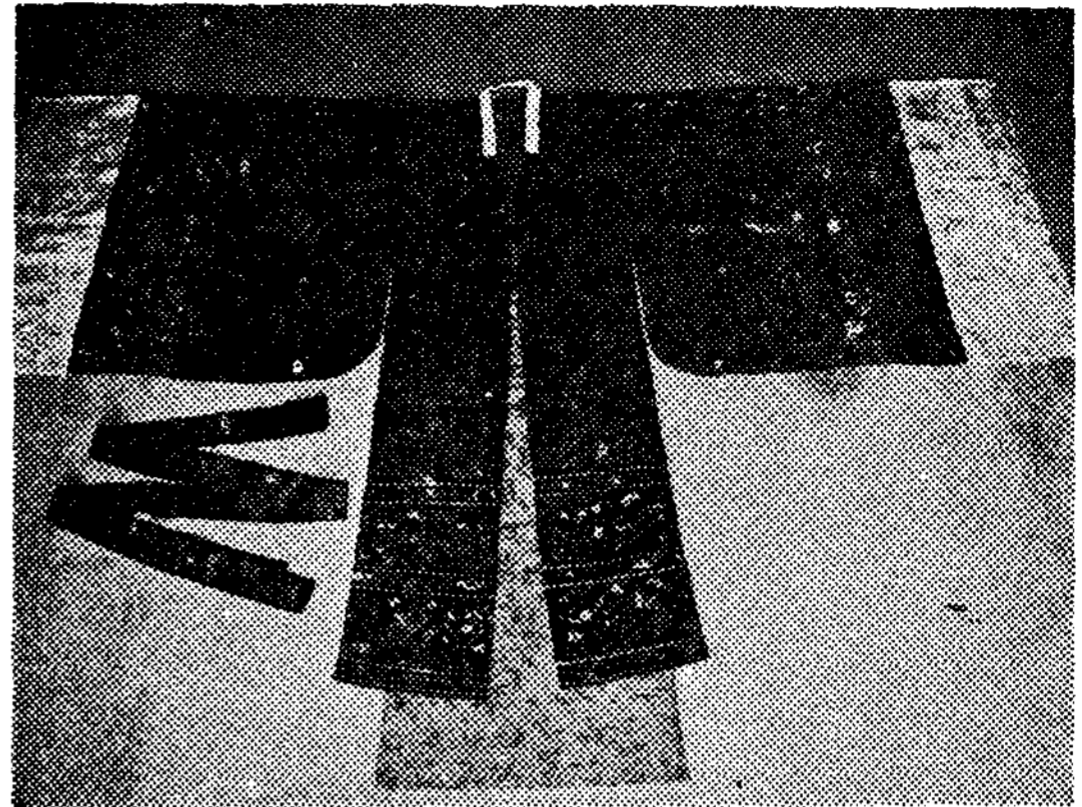
있던 福溫公主의 嘉禮婚服¹⁰⁾인 활옷이다.

五. 福溫公主 활옷의 實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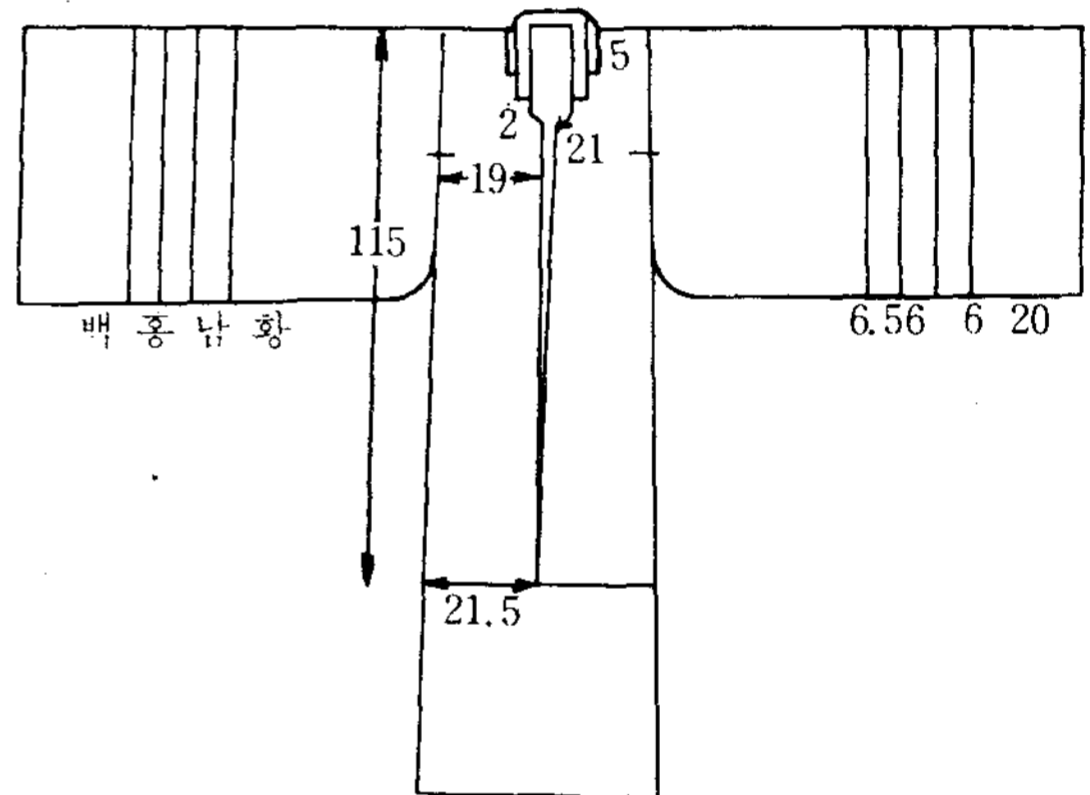
활옷의 一般치수를 밝히는 것은 새로 發見한 遺品の 基本事項일 뿐이고 研究上의 意味는 별로 없으며 더 나아가서 遺物의 치수比較 또한 큰 意味는 없다. 이는 어떠한 種類의 服章이라도 그 입는 사람에 따라서 치수가 決定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實物을 직접 對面하지 못한 경우에 實物대신 치수로 알리는 效果가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치수의 提示가 價値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는 발견된 遺物의 主人이 明白한 경우와 時代別 差異가 있을 때에 그 활옷의 諸般構成比 바로 그것만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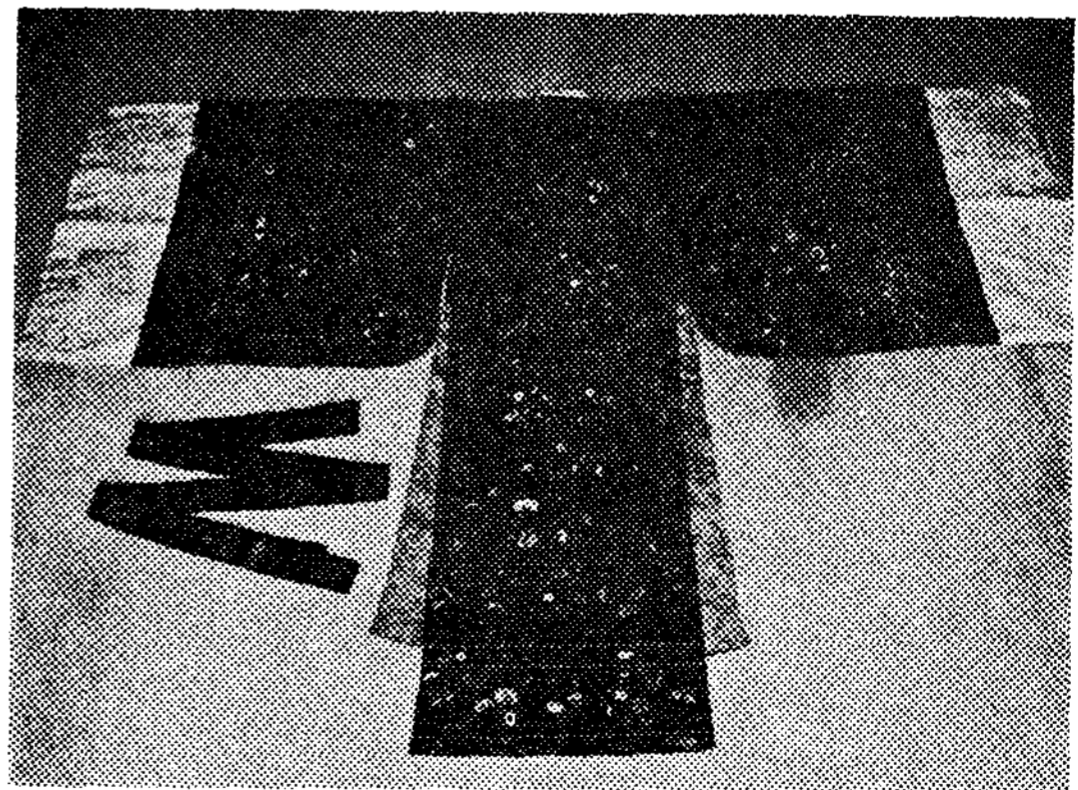
그러면 福溫公主의 활옷을 實測하여 그 全貌를 보기로 한다.



〈福溫公主 활옷의 前面〉



〈福溫公主 활옷 前面의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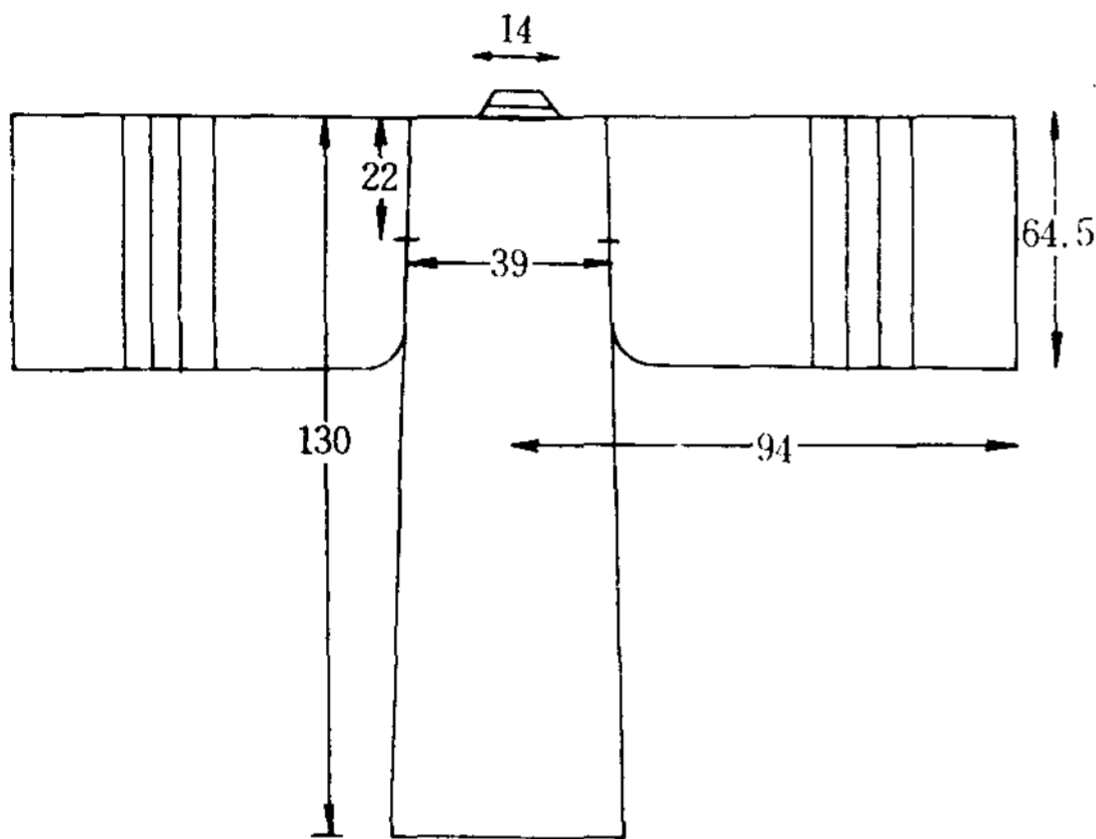
〈福溫公主 활옷의 背面〉

10) 金用淑『宮中件記의 研究』(『郷土서울』 第18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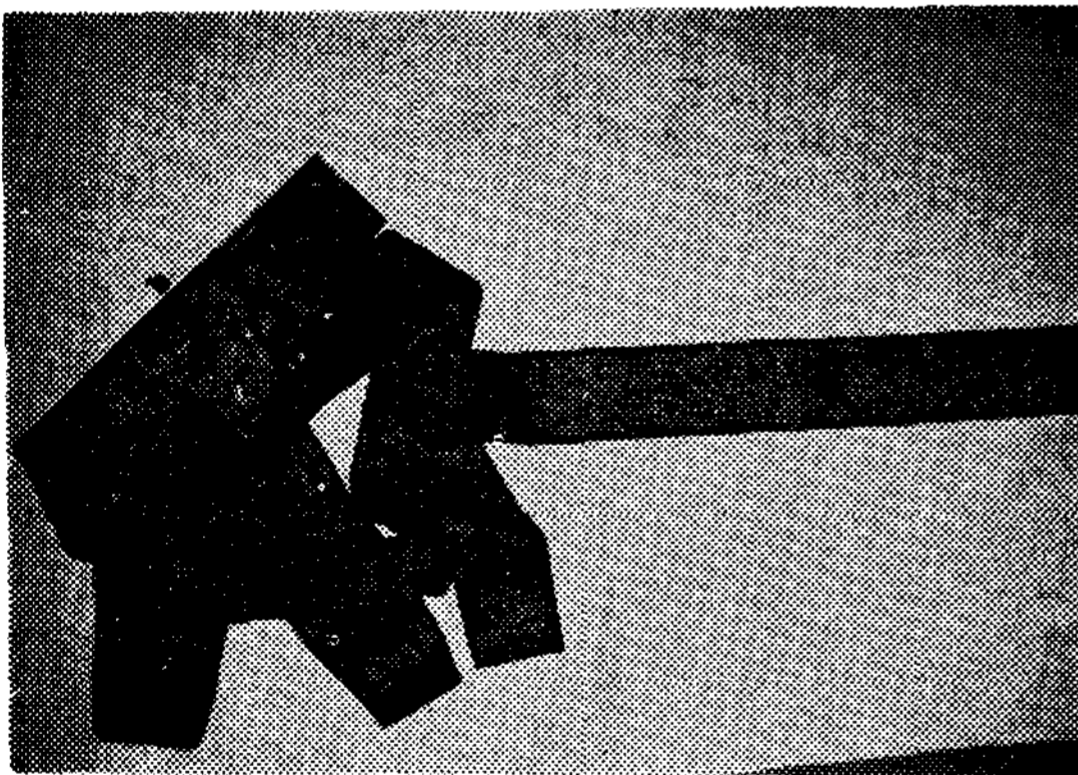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 二冊. 文祖神貞后嘉禮都監儀軌 二冊. 禮服(藏書閣所藏). 國婚定例(同上). 樂學軌範. 大韓禮典(藏書閣所藏).

활 옷 實 測

遺 品 名	길		폭	화장	진동	배래	색 동			한삼
	앞길	뒷길					황	남	홍	
福溫公主의 활옷	115	130	39	92	22	64.5	황 6.5	남 6	홍 6	20
昌德宮所藏의 활옷	103	129	41	88	24	60	황 6	홍 5.5	남 5.5	20
高麗大學校博物館 所藏의 활옷	100	122	49	98	26	53	남 8	황 8	홍 8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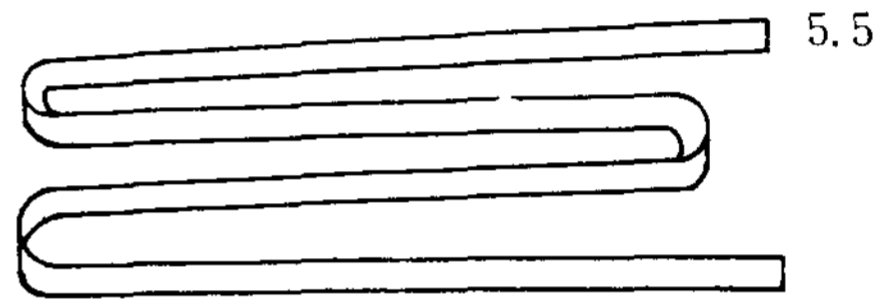


〈福溫公主 활옷의 背面實測圖〉



〈福溫公主 활옷의 附屬品〉

여 그 前後가 크게 다른 樣相을 가지고 있었다.



폭 : 5.5 길이 : 342

〈福溫公主 활옷의 附屬品 實測圖〉

六. 福溫公主 활옷의 細部各論

1. 色彩의 淡純美

우리나라의 服章色彩는 三國時代를 轉期로 하

即 三國以前의 우리나라 사람의 服章色彩는 大體的으로 白色基調였고 中國은 黑色基本이었다.¹¹⁾

그러나 三國以後로는 中國의 色彩觀을 거의 模倣하여 五行學說을 따라 쓰면서도 爲政階級에 서는 一般人에게 色彩規制가 甚大하였던 것이 그 特徵이었다.¹²⁾ 그러나 이미 『禮記』에 보이는 色彩哲學인 『正色』(黃配土, 青配木, 白配金, 赤配火, 黑配水)과 『間色』이 모든 色彩의 基本을 이루고 發達하였다. 심지어 人間存在마저 色彩觀으로 規定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婚禮服인 활옷의 基本色調는 紅色(多紅色)과 藍色으로 構成되는 바(表則紅色·內則藍色), 이것은 東洋의 基本色彩觀인 五德生成의 思想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發見된 民間用 활옷의 色彩가 正紅色과 거리가 먼 色彩의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그것이 布地의 質과 染色技術의 拙劣에 基因하는 것일 뿐이다.

福溫公主 활옷의 色彩는 宮中활옷이 지닌 本

11) 史記(秦始皇本紀) 『…衣服旄旌節旗皆上黑』.
王宇清著 『歷運服色考』 一, 二節.
王宇清著 『中國服裝史綱』 117~137面.

12) 李相恩 『朝鮮王朝 世宗朝의 服飾政策』(『服飾』誌 第5號 166~168面).

來의 基本色彩로 構成配合되어 있다. 民間用 활옷의 色彩가 아름답지 못한 것은 위에서도 지적한대로 緞布와 染色이 單拙하였으나 그에 比較한다면 福溫公主의 활옷은 먼저 視覺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色彩의 淡純美에서 우러나오는 高尚함과 配色의 安定感을 바탕으로 한 화려함이 色彩의 格調를 無限히 높이고 있다.¹³⁾

2. 構成의 均衡美와 形態美

활옷의 기장은 앞길이와 뒷길이의 差異가 寸수상으로 15cm로서 어느 民間用활옷이 보여주듯이 高대가 작는데 反하여 公主활옷은 通常적으로 앞을 트고 앞길이 曲線이며 매우 짧은 동정(길이 42.5cm, 폭 2.2cm)을 달았다. 무엇보다도 이 동정의 美와 寸수는 감히 接近이 어려울 만큼 氣品을 담뽁 머금고 있어, 기장에 對比되는 構成上의 야무진 特色으로 돋보이고 또한 기장에 對比되는 소매의 길이와 넓은 理解心과 도량을 마음껏 지닌 허리폭과의 均衡은 美的으로 昇華되어 있으며 女性美의 包縮인 소매폭과 그 構成의 對比가 보여주는 활옷特有의 構成美는 하나도 나무랄 곳이 없을 정도이다.

이밖에 또한 宮中針房의 야무진 水準높은 솜씨가 그대로 배여있고 활옷全體의 構成上 針繕의 精細함에 오직 놀라울 뿐이다. 色彩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 構成上 形態의 均衡과 調和는 福溫公主의 활옷이 보여주는 두번째의 特色으로써 高潔한 品性이 如實하게 드러난다.¹⁴⁾

3. 繡飾美의 極致

활옷에 화려한 繡를 놓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施繡의 紋樣內容은 內·外命婦의 差異가 있다는 사실도 常識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활옷을 研究하는 途上에 실제로 부치는 경우 그 紋樣의 內容을 구체적으로 檢討分析

하여 보면 明白히 區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번에 多幸히 福溫公主의 활옷을 찾아냄에 따라서 宮中公主활옷에 施繡된 紋樣은 어떠한 것인지 비로소 鮮明하게 把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먼저 어떠한 종류의 紋樣이 繡놓여져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A. 花草類

蓮花, 不老草, 牡丹, 石竹花, 佛手, 菊花, 不輪花(7個種類).

B. 樹木類(果實類)

天桃, 石榴(2個種類).

C. 昆虫類

나비(1個種類).

以上 10個種類的 紋樣이 나타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볼 수 있는 紋樣의 種類는 그 가지數에서 볼 때 보통보다 적은 數字가 아닌 것이다. 보다 重要한 것은 이 보통 알고 있는 활옷紋樣보다는 福溫公主 활옷에 施繡된 『寶紋』인 것이다.

寶紋이란 東洋文化圈에서 多樣한 吉祥을 意味하는 紋樣을 말하는 것인데, 佛敎·道敎·中國的인 것과 韓國的인 것, 그리고 日本의 것도 있어서 時代와 民族에 따라 그 指稱하는 內容과 數字가 一定하지 않다. 그러나, 佛敎思想에서 指稱하는 八寶(螺寶·輪寶·傘寶·蓋寶·花寶·瓶寶·魚寶·腸寶)와 道敎思想에서 말하는 八仙寶(青峯寶·道精寶·簡板寶·葫蘆寶·玉扇寶·玉笛寶·籃子寶·荷花寶)는 中國의 八寶를 形成해 주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七寶로 통하는데 그 指稱하는 內容이 때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寶紋의 指稱은 固定的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此際에 밝혀 둔다.¹⁵⁾

그러면 福溫公主의 활옷에 보인 寶紋은 어떠

13) 高裕變著『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

金元龍著『韓國美術史』, 『韓國美術小史』, 『韓國美의 探求』.

崔淳雨著『韓國美術五千年』.

14) 朝鮮總督府中樞院『李朝實錄風俗關係資料撮要』

文化財管理局『重要民俗資料指定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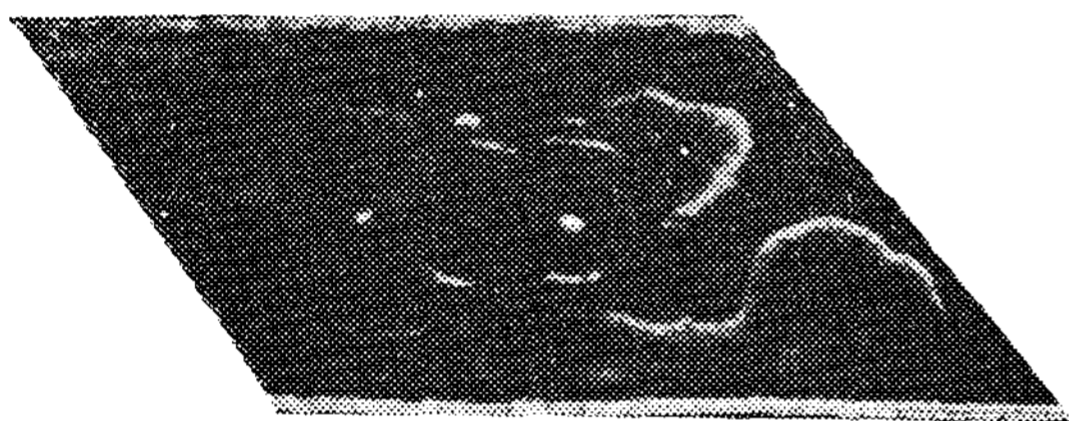
文化財管理局『指定文化財解說』

15) 『無量壽經』金·銀·琉璃·瑪瑙·瑤瑤·珊瑚. 『法華經』金·銀·琉璃·瑪瑙·瑤瑤·珊瑚·眞珠·玫瑰. 『般若經』金·銀·琉璃·瑪瑙·瑤瑤·珊瑚·琥珀. 『恒水經』赤珠·玻璃가 加해짐. 『佛比論』頗睢迦가 加해짐. 『阿彌陀經』恒水經과 同一함. 『輪輪王』金輪寶·白象寶·紺馬寶·神珠玉·玉女寶·居士寶·主兵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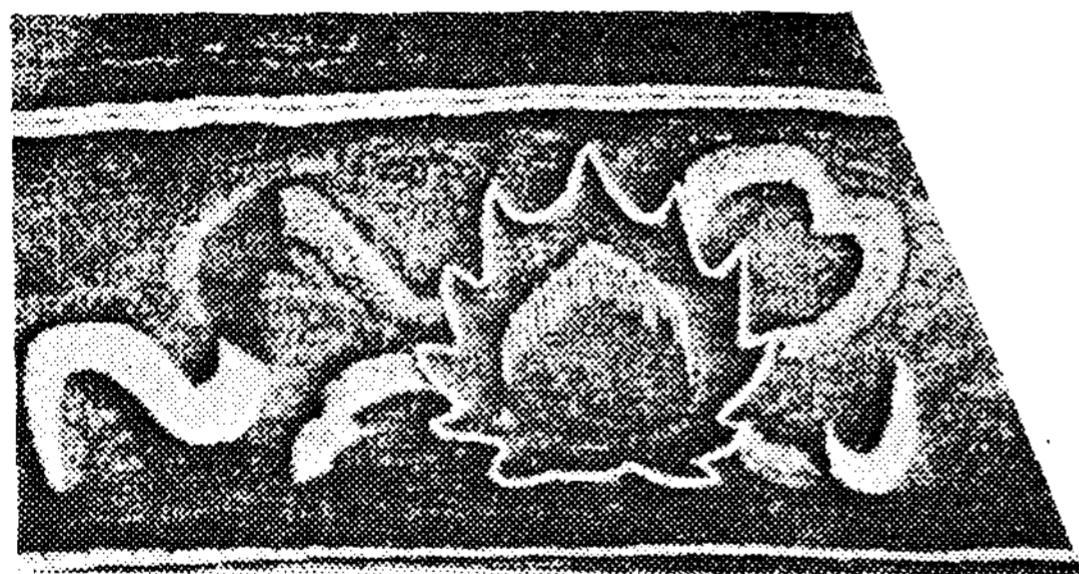
한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기로 하겠다.

佛敎思想에서 指稱하는 寶紋은 輪寶·螺寶·傘寶 3가지이고, 道敎思想에서 말하는 寶紋으로 는 輪寶·螺寶·葫蘆寶·扇寶 4가지이며, 우리나라에서 寶紋으로 指稱하는 것으로는 輪寶·象寶·馬寶·女寶·將寶·主藏臣寶의 6가지 것이 나타나 있다. 이와같이 福溫公主의 활옷에는 여러 思想的 背景에서 指稱하는 寶紋이 混合되고 調和를 이루고 있어 이제 그것을 모두 每學說明 하고자 한다.

A. 輪寶紋



〈佛敎의 輪寶紋〉



〈道敎의 輪寶紋〉

輪寶紋은 佛敎思想에서 起源한 紋樣으로 大法(敎法)이 쉬임없이 둥글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民間用활옷에는 이 輪寶의 圓輪이 交叉한 그안에 박쥐를 繡놓은 것도 있다. 그러한 것은 通常的寶紋에 들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多方面 장식에 그려져 있다. 그러한 施繡는 粗雜하여 紋樣體가 돌아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寶紋自體가 뜻하는 意味를 抹殺하고 있다.

佛敎의 一圓之光이 遍照十方하는터에 그 圓輪이 서로 交叉하는 것은 바로 無窮한 世上을 비치는 存在이고 서로 圓滿하게 지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福溫公主 활옷에 繡놓여진 輪寶는 무한히 鮮明하게 浮刻된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같은 輪寶이면서도 八仙寶의 輪寶가 또 따로 繡놓여져 公主활옷에는 두가지 形態의 輪寶紋이 있다.

B. 螺寶紋



〈佛敎의 螺寶紋〉

이 寶紋은 佛敎와 道敎에서 다같이 指稱하는 紋樣으로 佛敎思想에서 迦陵頻伽(Kalavinka)·迦陵頻·頻伽鳥로 불리우는 想像鳥이다. 이 새는 모양이 아름다워서 머리는 美女를 닮았고 몸매가 가냘프고 날씬하여 이 世上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極樂淨土의 靈山에 사는 佛敎의 靈鳥인데, 菩薩果¹⁶⁾에 이르렀다. 婚禮服에 繡놓을만한 紋樣이라고 하겠다.

C. 玉扇寶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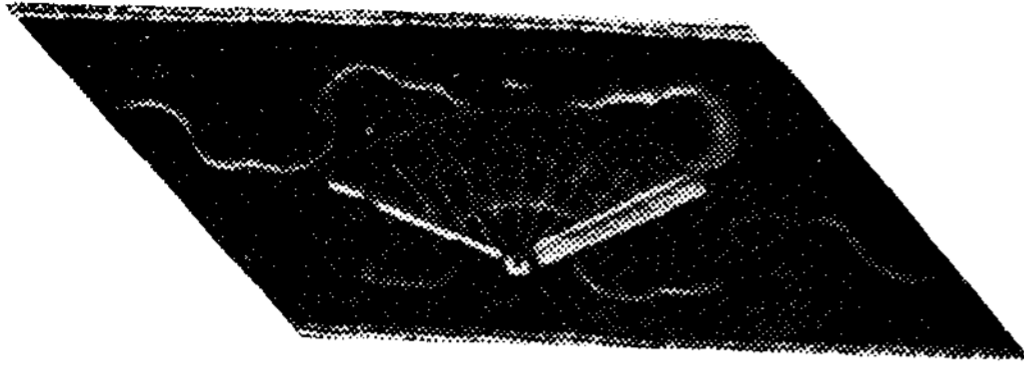
韓國的인 玉扇寶紋과 道敎的인 것 두가지가 施繡되어 있다. 仙人所持의 玉扇(鳥羽)과 一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채形 紋樣이다.

『佛敎八寶』螺寶·輪寶·傘寶·蓋寶·花寶·瓶寶·魚寶·腸寶. 『道敎八寶』寶劍·道情·簡板·葫蘆·玉扇·玉笛·藍子·荷花.

中國의 경우: 『故宮如意選華』法螺·法輪·寶傘·瑞花·寶瓶·金魚·盤長.

韓國의 경우: 『星湖僊說』『閨閣叢書』天符·玉鷄·穀壁·如意寶珠·紅鞞鞞·雷公石·琅玉珠·採桑鉤·玉印.

16) 菩薩果란 梵語의 Phala로서 因緣에 의한 結果라는 뜻이다. 古服飾에 관한 어느 글에는 果實로 알고 썼음을 보는데 『初果』란 처음 탄 果實이란 뜻이 아니고 世上의 유희를 완전히 끊고 聖者속에 드는 『預流果』라는 意味인 것을 알면 理解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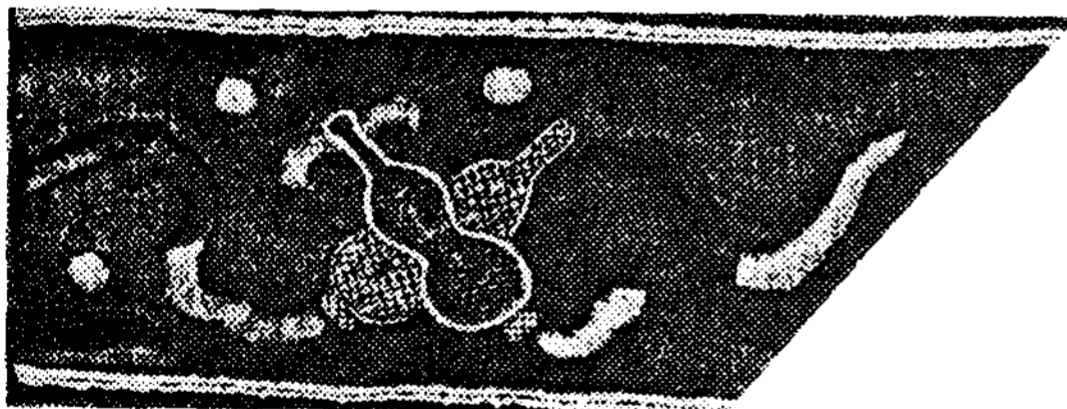


〈韓國的인 扇寶紋〉



〈道教的인 扇寶紋〉

D. 葫蘆紋



〈韓國的인 葫蘆紋〉

어느 것은 하나만을 繡놓은 것도 있으나 公主 활옷에 보이는 것은 두개를 交叉하여 놓은 葫蘆 紋樣이다. 福과 知慧가 원만히 갖춘 瓶寶와 五 濁의 世界어디에 피어도 世上을 밝고 맑게 하는 花寶의 意味를 同時에 지닌다고 하겠다. 그리고 子孫들의 安寧과 繁榮을 祈願하는 葫蘆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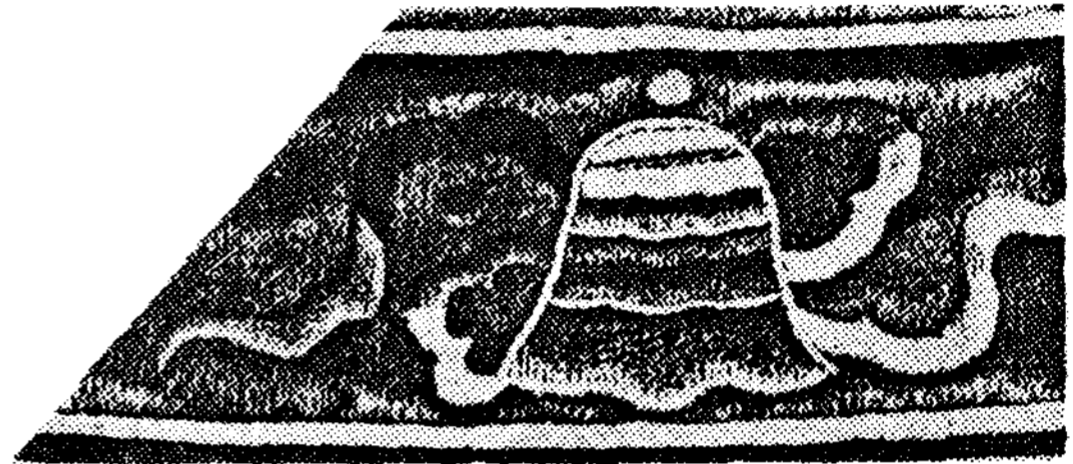
E. 象寶紋

이 象寶는 壽命長壽를 뜻하는 紋樣으로 單한 개만을 繡놓은 것도 있으나, 公主 활옷에는 두개 의 象寶를 交叉하여 놓았다.



〈象寶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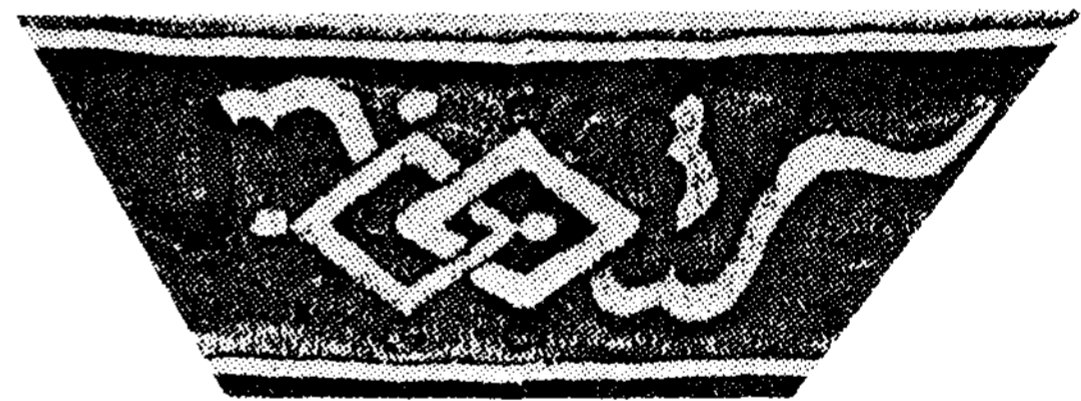
F. 馬寶紋



〈馬寶紋〉

이 紋樣은 보통 佛具繡飾에 많이 쓰이고 服繡 飾에는 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公主 활옷에는 紋樣化되어 있다.

G. 女寶紋



〈女寶紋〉

이 紋樣은 陰을 뜻하는 裝飾으로서 說明은 省 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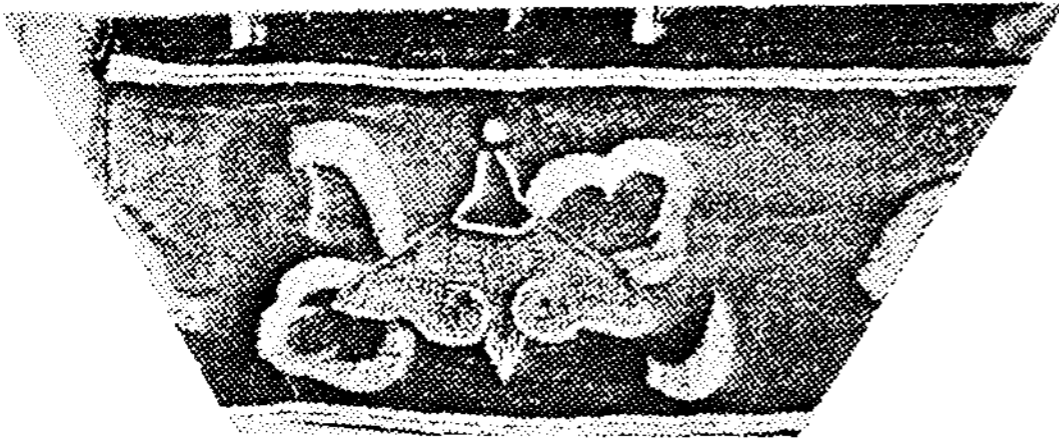
H. 將寶紋



〈將寶紋〉

이 紋樣은 男性을 뜻하는 것으로서 說明은 省 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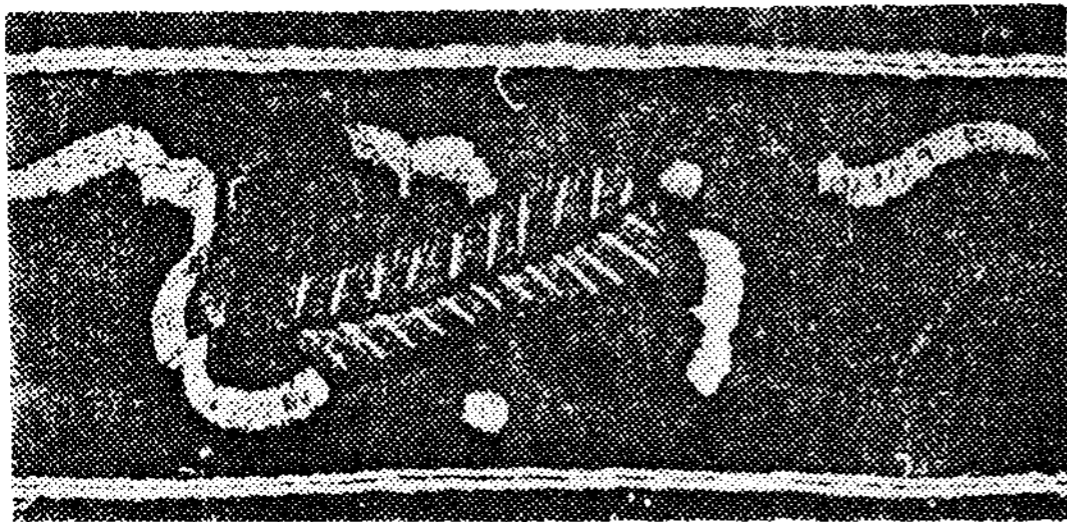
I. 傘寶紋



〈傘寶紋〉

이 寶紋은 衆生濟度の 佛敎思想을 紋樣化한 것이다. 公主의 활옷이므로 宮繡로서는 宜當 施繡할만한 紋樣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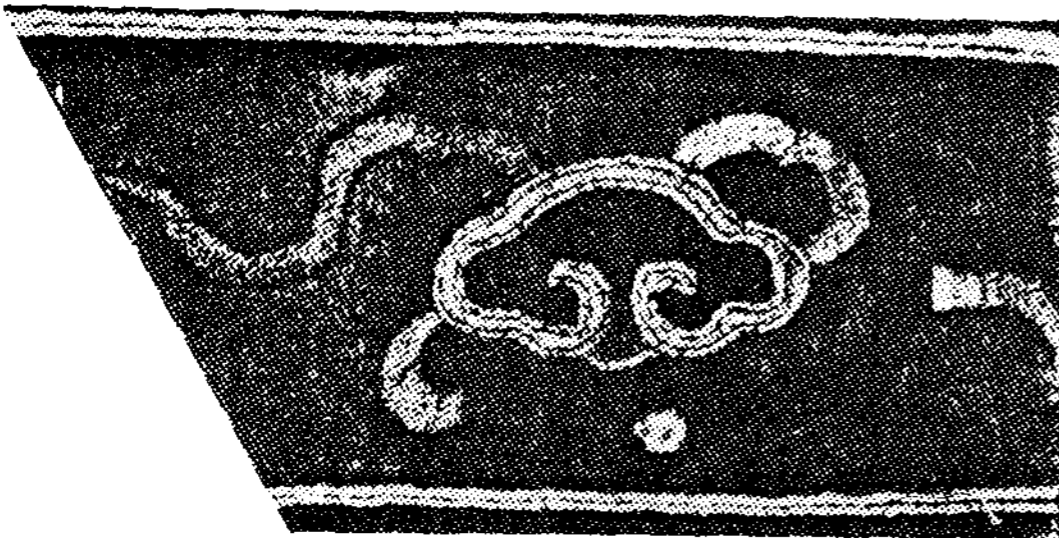
J. 主藏臣寶紋



〈主藏臣寶紋〉

이 紋樣은 陰陽이 調合된 結果로 生成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紋樣化된 形態는 梅瓶形으로 施繡되었다. 婚禮服에 繡놓을만한 寶紋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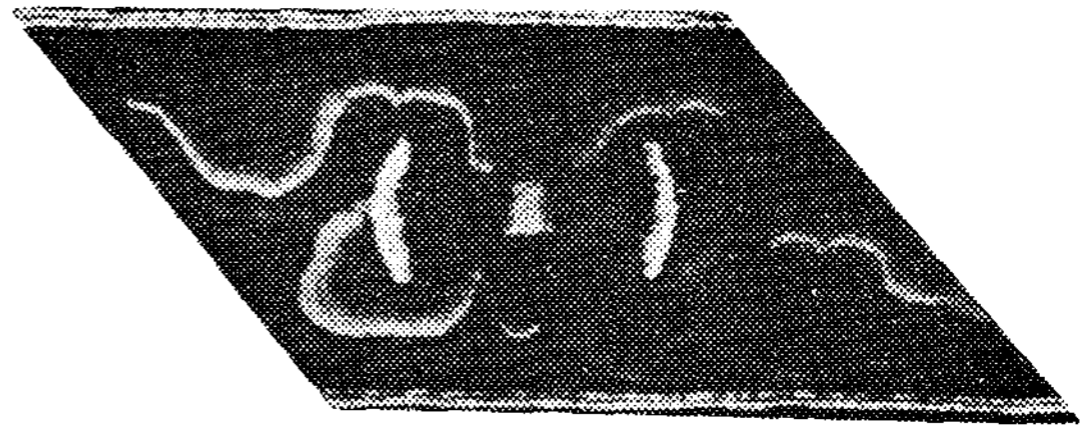
K. 採桑鉤寶紋



〈採桑鉤寶紋〉

通念上 八寶 및 七寶의 指稱속에 들지 아니하면서도 실제로는 寶紋樣으로 이 採桑鉤寶紋이 施繡되기도 한다. 뽕을 따고 누에를 치는 일은 宮中皇后도 하는 重要視되던 일이어서 이러한 紋樣이 나타나는 것이다.

L. 雷公石寶紋



〈雷公石寶紋〉

모든 보배를 意味하는 寶紋으로서 이것을 햇빛속에 내놓아두면 그 氣運이 별에까지도 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財物에 대한 紋樣이다.

위에서 考究한 바와같이 福溫公主의 활옷에 施繡된 각종 寶紋은 종래 흔히 말하는 七寶 및 八寶가 엄격하게 區分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가지 寶紋으로 指稱되는 것을 佛敎와 道敎의 兩側이 指稱하는 두가지를 함께 繡놓았을 뿐만 아니라 韓國에서 指稱하는 것도 들어있다. 그러므로 數字的으로는 寶紋이 七個 또는 八個에 그치지 않고 福溫公主의 활옷에 施紋된 寶紋의 個數는 모두 合하면 15個에 이른다.

그리고 한가지 民間用 활옷에 나타나 있는 文字紋인 『二姓之合』이라던가 『百福之源』, 또는 『壽如山 富如海』, 『百年同樂 五福具全』 등과 같은 文字는 繡놓여져 있지 않다. 따라서 宮中の 公主활옷에 이와같은 文字紋이 없는 것을 보면 文字紋은 民間用 활옷에서부터 넣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七寶 및 八寶를 施繡하면서 온갖 吉祥한 것은 다 象徴的으로 刺繡하여 놓고 또한 구태여 俗되게 二姓之合이라고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俗化된 現象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寶紋以外的 10個의 紋樣은 民間用 활옷에서 보듯 花草類를 비롯하여 樹木과 鳥類의 가지수가 간단한 것도 公主활옷의 特色이기도 하다. 이것 또한 時代가 現今에 가까워올수록 民間用활옷에서는 吉祥한 것이라면 無制限 刺繡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結果는 마치 서투른 民畫를 보는 듯 하다. 그러한 民間用 활옷을 보다가 이번에 福溫公主의 遺品을 대하니, 그 品格과 威儀 즉 脫俗의 높은 境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¹⁷⁾

17) 繡林苑 『李朝의 刺繡』.

許東華 『韓國의 刺繡』.

空間社 『韓國의 紋樣』.

韓道龍 『世界紋樣圖鑑』.

金用淑 『李朝後期 妃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亞細亞女性研究』 第5號).

七. 福溫公主 활옷의 諸般特徵

叙上에서 論及한 內容을 통하여 福溫公主의 활옷이 지닌 여러가지 중요한 特色이 밝혀졌다. 그러면 계속하여 그 具體的인 諸般特徵을 究明하려고 한다.

1. 刺繡된 紋樣種類의 單純化

民間用 활옷에서 보인 紋樣의 多樣性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이번 宮中의 公主활옷이 나오므로써 그것을 究明한 結果 公主활옷은 繡놓은 紋樣의 種類가 매우 單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民間用 활옷에는 으레히 鳳·鹿·鴛鴦과 十長生등은 必須的으로 登場하는 것인데, 公主의 활옷에는 十長生중에서 不老草 한 가지만 나타나 있을 뿐이다. 『五洲衍長箋散稿』의 著者는 『百花袍』¹⁸⁾라고 表現하여 많은 動·植物을 刺繡하였음을 말했지만, 公主활옷에는 그 많은 것들을 雜多하게 描寫하지 않았다. 더구나 公主활옷이 보여준 特徵中의 다른 하나는 소매의 끝부분(白色部分)에 아무런 施繡가 없다는 점이다.

2. 활옷緞布의 染色美

過去 우리나라의 民間染色은 그 技術의 拙劣性때문에 民間用 활옷의 色彩가 대부분 紅色이 아니라 赤色에 가까운 것이었다. 더구나 民間에서는 이 紅色服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더우기 紅色系統의 服色은 桃花色과 粉紅色으로 代置되었다. 다만 紅色은 宮中에서만 使用하였으므로 宮中활옷의 緞地는 紅色(大紅·多紅)을 染色할 수 있었다. 이러한 具體的인 遺品을 이번에 直接 보게 된 것이었다.¹⁹⁾ 宮中에서 紅色을 만들때에는 紅花를 染入하여 만들었으며, 그 色調는 淡調로서 지극히 鮮明하고 아름다운 色彩였다.

3. 섬세하고 端正한 동정

民間用 활옷에도 동정은 있으나 그 모양의 大小와 全體構成의 對比가 均衡이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는 것이 많아서 醜하게 보인 경우가 있다.

公主활옷에 달아놓은 동정은 섬세하고 端正하여 마치 平沙落雁의 사뿐한 動態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녹녹치 않는 端雅美가 넘치고 있다.

4. 刺繡의 調和美와 針繕美

이 福溫公主의 활옷이 발견되기 前에는 昌德宮所藏의 遺物中에 있는 활옷이 가장 研究上의 比重이 높았었다. 그 昌德宮所藏 활옷을 보면 施繡한 꽃의 크기가 너무 크게 刺繡되어 造形上의 아름다움이 없다. 즉 均衡美와 造形美가 缺如되어 있으나 公主활옷은 꽃을 비롯하여 갖가지 刺繡가 모두 섬세하고 精巧하되, 그 均衡과 조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고 바늘자욱 하나도 아니 보이는 極上의 針繕을 보여주고 있다.

5. 公主활옷이 보여준 앞길이의 異色的 構成

公主활옷이 보여주는 그 構成上 다른 하나의 特徵은 앞길이 양쪽 上段어깨에서 겨드랑이에 미쳐 이르지 못한 中間地點에 걸쳐 寶紋을 施繡한 것을 原緞에 덧붙혀 놓은 點을 위시하여 모든 寶紋의 施繡는 그와같이 하였다.

6. 金糸線에 의한 空間的 造形美

公主활옷이 보여주는 決定的인 特徵은 金糸로 線繡를 놓아 全體활옷을 造形的으로 區分하였다는 사실이다. 前面部分에서는 소매에 가로 두줄을 線繡로 놓아 區分하고 下段에 이르러서는 여섯줄을 그어 큰 2段과 작은 3段으로 나뉘었다. 背面을 보면 소매는 가로 여섯段을 나누워 前面 下段의 경우와 같고 幅은 세로 여섯줄을 그어 나누고 背面下段은 前面下段과 같이 區分하였다. 이와같이 區分하여 놓은 다음에 각기 그 안에 각종 紋樣을 均齊히 配置하였다. 服飾上에 造形的인 空間을 創造한 繡飾의 最高境地를 보게 된다.

18)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十五.

19)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二十八年五月條.
宣祖實錄 三十四年六月條.
星湖僊說 卷之十二.

八. 結 論

福溫公主의 활옷을 發見 研究한 成果로 今後에는 활옷에 관한 既存知識이 상당히 修正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그 核心的인 內容을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옷研究上 公主의 활옷遺品은 純祖의 第二女 福溫公主의 것을 발견하여 宮中 내지 公主활옷의 全貌를 把握하게 된 事實이다. 둘째 활옷에 寶紋繡飾한 事實, 從來의 通念上 韓國은 七寶, 中國은 八寶라고 하는 固定觀念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된 點이다. 公主활옷에서는 劃然히 區分하여 使用하지 않고 佛敎·道敎·그리고 中國的인 것과 韓國的인 것까지 모두 混合하여 施紋한 特色도 보인다. 셋째 紋樣刺繡에 있어서도 吉祥에 드는 모든 動植物을 닮는대로 施紋한 것이 아니고 公主활옷에는 그 紋樣의 種類가 10個에 그치고 文字紋은 없다는 새로운 사실도 보여준다. 넷째 활옷의 構成上 各部分 寸수의 對比가 既存 民間傳來의 遺物과는 다른 整然한 構成美를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宮繡의 精髓를 볼 수 있다는 點이다. 이 公主의 활옷과 함께 밝혀진 昌寧尉의 武服 및 團領과 公主가 使用하던 方席등에 관한 研究論文은 새로히 發表하고자 한다.

15歲라는 꽃봉우리같은 어린 나이에 悲運에 간 福溫公主는 離苦得樂 極樂淨土에서 無量永劫토록 安住하리라 믿으며 筆者의 이번 研究가 誤謬없기를 바란다.²⁰⁾

參 考 文 獻

尙方定例(卷之三)
高麗史(志卷二十六)

五洲衍文長箋散稿(卷之十五)
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正祖實錄·純祖實錄)
安東金氏世譜(卷五)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二冊)
文祖神貞后嘉禮都監儀軌(二冊)
禮服(藏書閣所藏)
國婚定例(同上)
樂學軌範
大韓禮典(藏書閣所藏)
星湖僊說(卷之十二)
閨閣叢書
恒水經
般若經
法華經
無量壽經
史記(秦始皇本紀)
李朝實錄風俗關係資料撮要
重要民俗資料指定資料(文化財管理局)
指定文化財解說(同上)
故宮如意選華(中國故宮博物院)
歷運服色考(王宇清)
中國服裝史綱(同上)
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高裕燮)
韓國美術史(金元龍)
韓國美術小史(金元龍)
韓國美의 探求(金元龍)
韓國美術五千年(崔淳雨)
李朝의 刺繡(繡林苑)
韓國의 刺繡(許東華)
韓國의 紋樣(空間社)
世界紋樣圖鑑(韓道龍)
圖像과 思想(허버트·리드)
韓國服飾史(石宙善)
韓國服飾史論(李京子)
韓國服飾史研究(金東旭)
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20) 朝鮮王朝實錄 純祖實錄(即位年——附錄까지).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473~486面.
金榮子 『韓服의 美的考察』(『韓國의 服飾』 402~404面).
허버트 리드(金炳翼譯) 『圖像과 思想』(VII 구성의 이미지).
李京子 『韓國服飾史論』(124~198面).